



2025년도 경북지역 통상 리스크 관련 영향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경북지역 통상 리스크 관련 영향

▷ 25년도 경북지역 통상 리스크 관련 요약 ◁



○ (경영환경)

- 경북지역 기업들이 바라본 올해 경영환경은 지난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 우세

○ (국내외 투자)

- 투자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줄이거나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더 우세

○ (주요 대외 리스크)

- 기업들이 올해 가장 우려하는 대외 리스크로는 '급격한 환율 변동'과 '세계 경제 둔화'를 꼽음

○ (국내외 투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미국의 '보편/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 지원 필요성)

- 불확실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환율 안정', '법인세 등 세제 지원 확대', '신규시장 개척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I 추진 배경

○ 2025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시행

- 개요

- 조사명 : 2025년 경북지역 통상 리스크 관련 영향 조사
- 조사대상 : 경북지역 제조업체 중 직접 수출·간접 수출·수출 예정 업체
- 조사기간 : 2025. 2. 19 ~ 2. 28 (10일)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 (이메일 / 팩스 / SNS 등)
- 응답수 : 239개사

- 규모별 응답

- 대기업 : 10개사 (4.2%)
- 중견기업 : 14개사 (5.9%)
- 중소기업 : 215개사 (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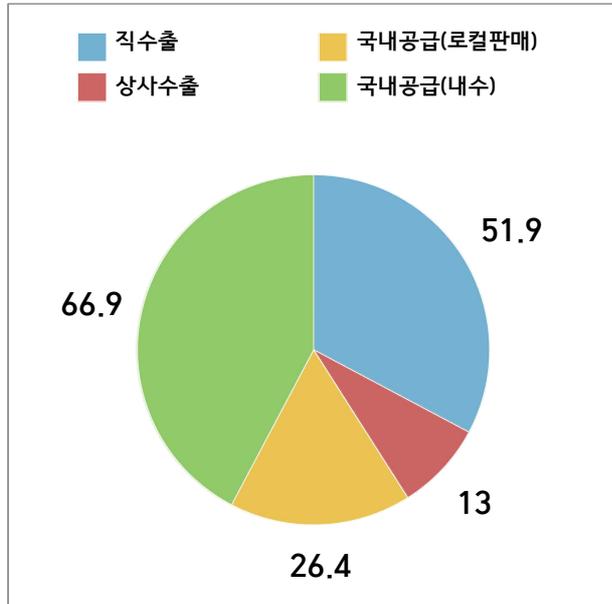
- 업종별 응답

(단위 : 개사, 비중%)

업종	개사	비중	업종	개사	비중
농림수산물	6	2.5	철강금속	26	10.9
섬유류	25	10.5	플라스틱/고무/ 가죽	24	10.0
화학공업	21	8.8	생활용품	14	5.9
기계류	65	27.2	잡제품	8	3.3
전기전자	40	16.7	기타	10	4.2
전 업종				23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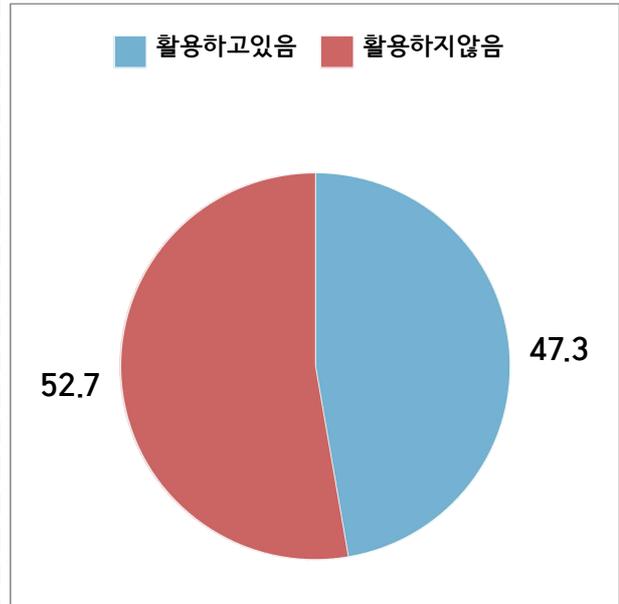
- 매출형태

(단위 : %)



- 수출 시 FTA 활용 여부

(단위 : %)



- 주요 수출국

(단위 :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미국	19.7	중국	9.2	아프리카	3.2
캐나다·멕시코	10.6	일본	6.3	호주·뉴질랜드	2.1
		인도	7.4	동남아시아	8.1
중남미	4.2	베트남	15.8	중앙아시아	1.1
유럽	5.3	중동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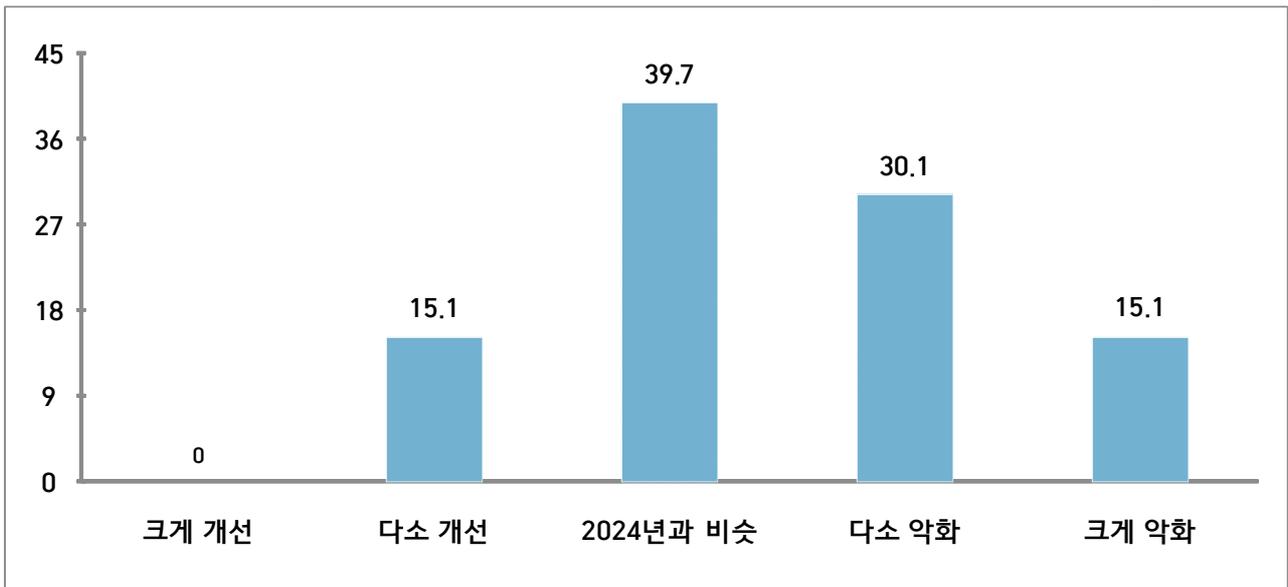
II

경영환경 및 투자계획

○ 2024년 대비 2025년 경영환경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2025년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2024년 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전체 업체 중 39.7%의 기업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였으나, 응답층의 45.2%는 전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전년보다 올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은 15.1%에 불과해 경영환경 악화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경영환경 전망

(단위 : 개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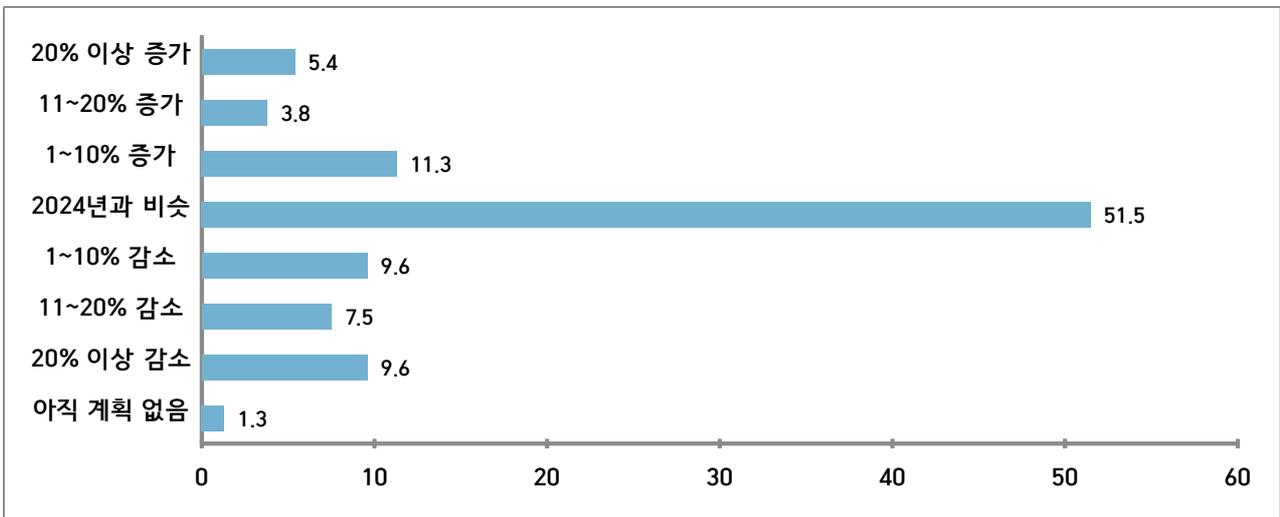


구분	개사	비중	구분	개사	비중
크게 개선	0	0.0	다소 악화	72	30.1
다소 개선	36	15.1			
2024년과 비슷	95	39.7	크게 악화	36	15.1
전 업종				239	100.0

○ 2024년 대비 2025년 국내·외 투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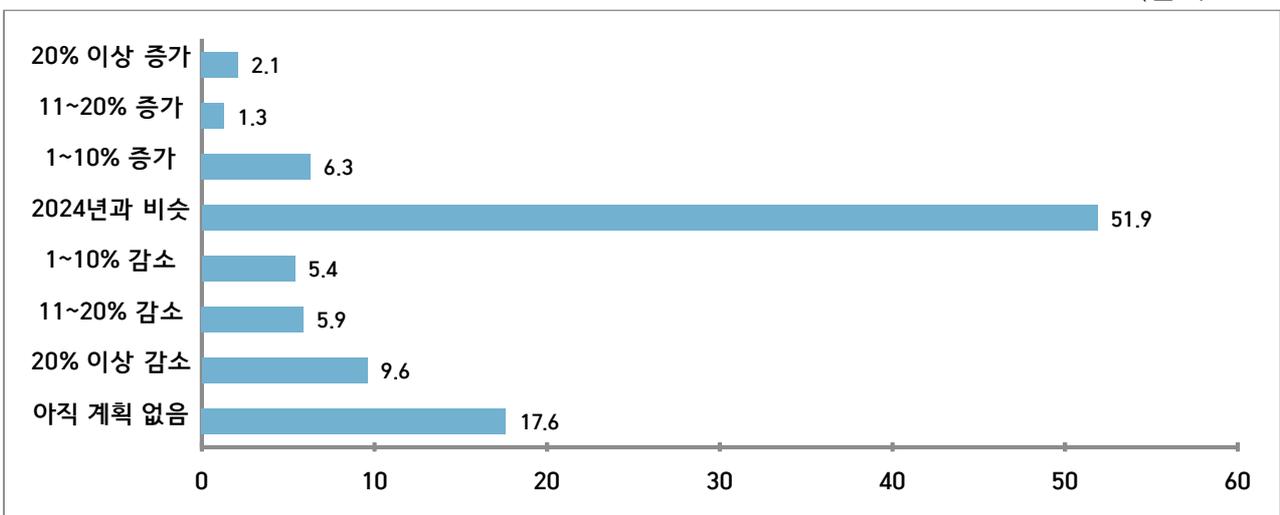
- 경북기업의 2025년 국내외 투자는 소극적으로 전망되며, 투자 확대 예정인 기업보다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계획인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모두 2024년과 비슷하게 투자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절반 이상
 - **(국내투자)** 국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28.0% 반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20.5%에 그침

(단위 : %)



- **(해외투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응답 기업의 38.5%가 투자 계획이 없거나 축소할 계획을 밝혔으며, 확대 예정인 기업은 9.6%에 불과

(단위 : %)



Ⅲ 주요 대외 리스크

○ 2025년 경북지역 업체가 예상하는 가장 큰 대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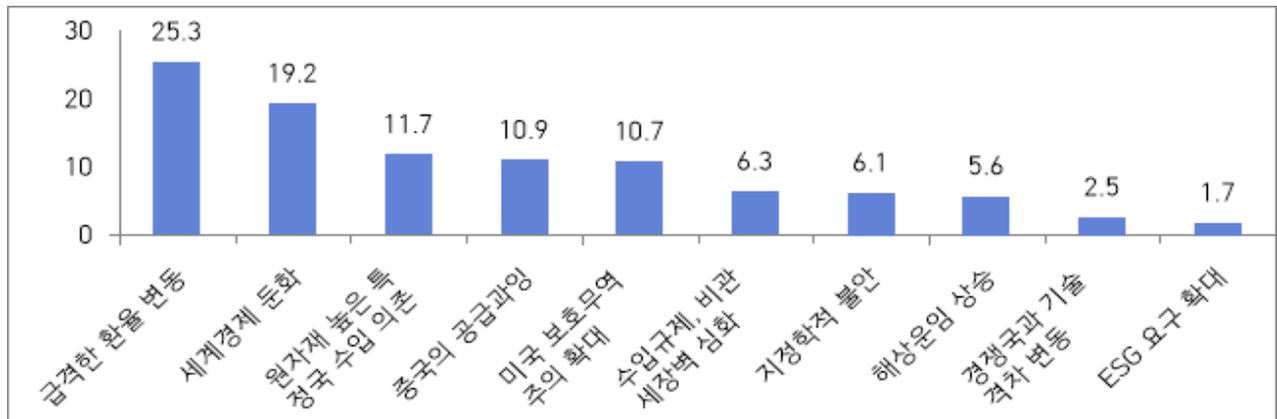
-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리스크로 급격한 환율 변동(25.3%), 세계경제 둔화(19.2%),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11.7%) 등 지적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환율 변동성에 대해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 시장의 절대 수요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경제 규모(2024년 GDP)의 약 44%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심화,

미국 'MAGA', 유럽 '바이 유러피언 / MEGA' 등 자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전망

2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약 3.1%,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 약 1.6%

(IMF, 골드만삭스, 한국은행, 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 평균치)



- (업종별)

(단위 : %)

업종	1순위		2순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농림수산물	세계경제 둔화	50.0	급격한 환율 변동	50.0
섬유류	중국의 공급과잉	76.0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20.0
화학공업	세계경제 둔화	28.6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23.8
기계류	급격한 환율 변동	20.0	지정학적 불안 지속	18.5
전기전자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37.5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20.0
철강금속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30.8	세계경제 둔화	23.1
플라스틱/고무/가죽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39.1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21.7
생활용품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28.6	급격한 환율 변동	21.4
잡제품	세계경제 둔화	25.0	생산원료·자재의 높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25.0
기타	세계경제 둔화	60.0	급격한 환율 변동	20.0

IV 대미 통상환경 변화 대응

○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에 따른 주요 통상 리스크로 '보편/상호관세 부과' 지적

- (업종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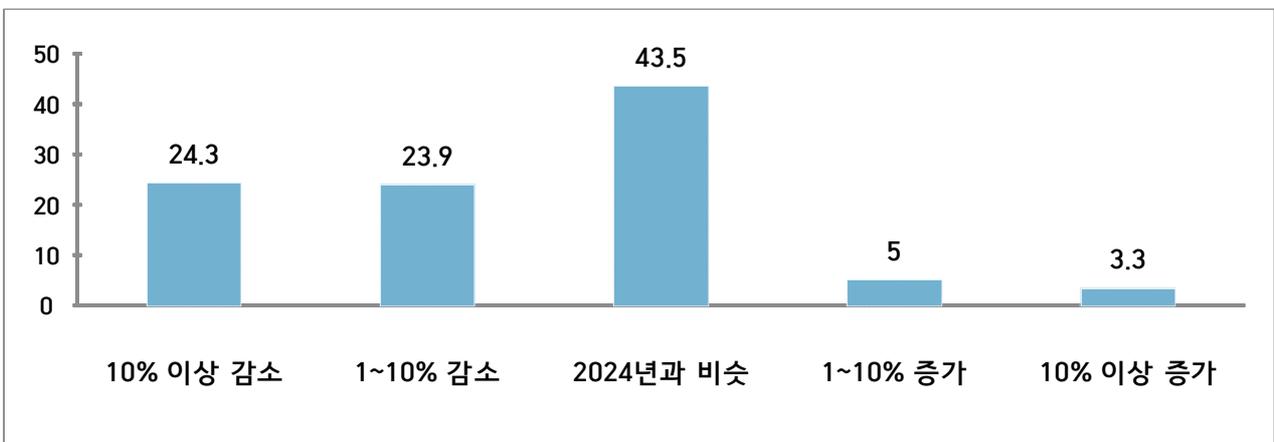
업종	1순위		2순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농림수산물	보편/상호관세 부과	50.0	무역법 기반 규제 확대	50.0
섬유류	보편/상호관세 부과	76.0	한미FTA 재협상	36.0
화학공업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42.9	대미 수출 시 특정국 원료·중간재 활용 제한	23.8
기계류	보편/상호관세 부과	41.5	해당없음	21.5
전기전자	보편/상호관세 부과	40.0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30.0
철강금속	보편/상호관세 부과	42.3	우리나라 환율조작국 지정	23.1
플라스틱/고무/가 죽	보편/상호관세 부과	50.0	미국 현지생산 요구 확대	25.0
생활용품	해당없음	35.7	한미FTA 재협상	28.6
잡제품	무역법 기반 규제 확대	25.0	한미FTA 재협상	25.0
기타	보편/상호관세 부과	50.0	미국 현지생산 요구 확대	20.0

○ 보편/상호관세 부과 시 매출 영향

- 보편 또는 상호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

* 보편관세 : 모든 국가에 대해 일정한 관세 부과

상호관세 : 다른 나라 관세 수준에 맞춰 동일한 수준 관세 부과



- 미국에서 보편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시 매출 관련 영향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2%는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만, 보편관세의 경우 대상 국가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하며, 상호관세의 경우에도 상대국 관세율 수준에 맞춰 부과한다는 점에서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보는 입장 43.5%
- 또한, 한국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중국 등 경쟁국의 판매단가 상승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기업도 8.3%
- 한국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생산 및 무역 전략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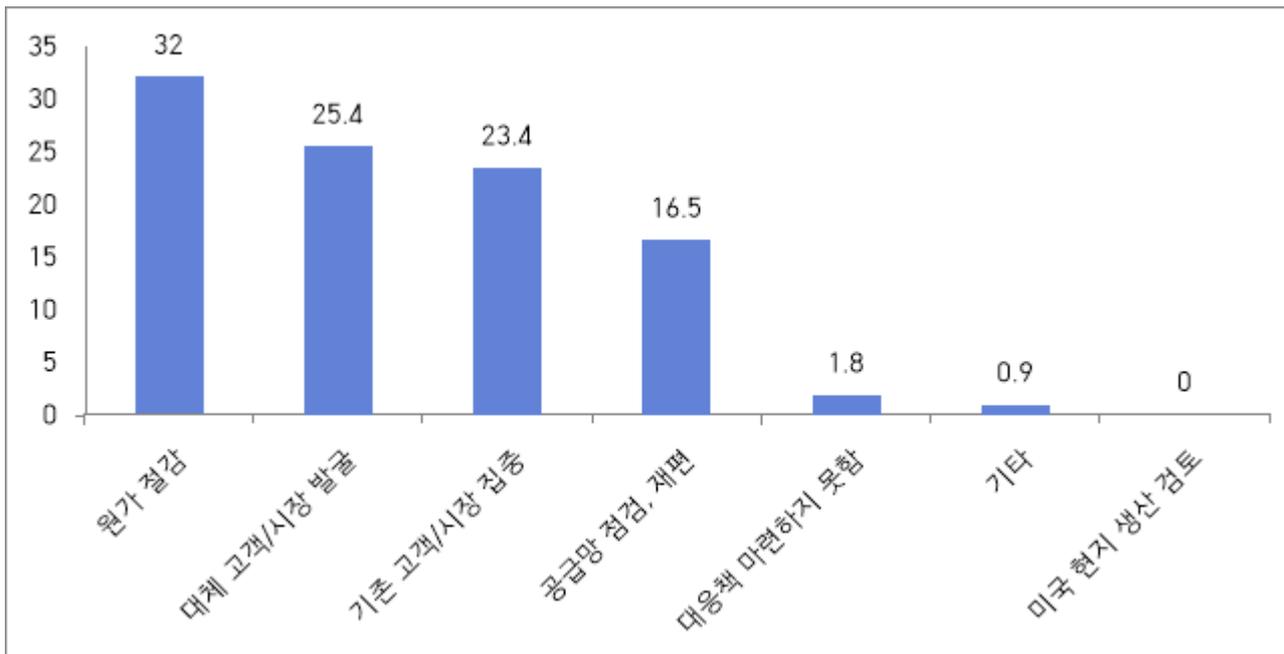
○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

- 미국의 불확실한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원가절감(32.0%)'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대체 고객사/신규시장 발굴(25.4%), 기존 고객사/수출시장 집중 (23.4%), 공급망 점검 및 재편(16.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미국 현지 생산을 고려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미·중 무역 분쟁의 지속, 고율 관세 및 수입 규제 확대, 무역협정 조정 가능성 등 미국의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통상정책 변화 대비 기업의 대응방법

(단위 : %)



V

통상환경 대비 경영활동 개선 정책 수요

○ 리스크 대처하기 위해 '환율 안정'을 가장 필요한 정부의 노력으로 제시

-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율 안정 (20.5%),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신규시장 개척 지원 확대(13.4%) 순으로 의견 제시

-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로 통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제 교역이 위축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수출입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불안정해짐

* 2024년 원/달러 환율은 연초(1,310.90원, 1월 2일) 대비 14.2% 상승하여 연말 종가(12월 31일)는 1,472.50원으로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년 이후 최고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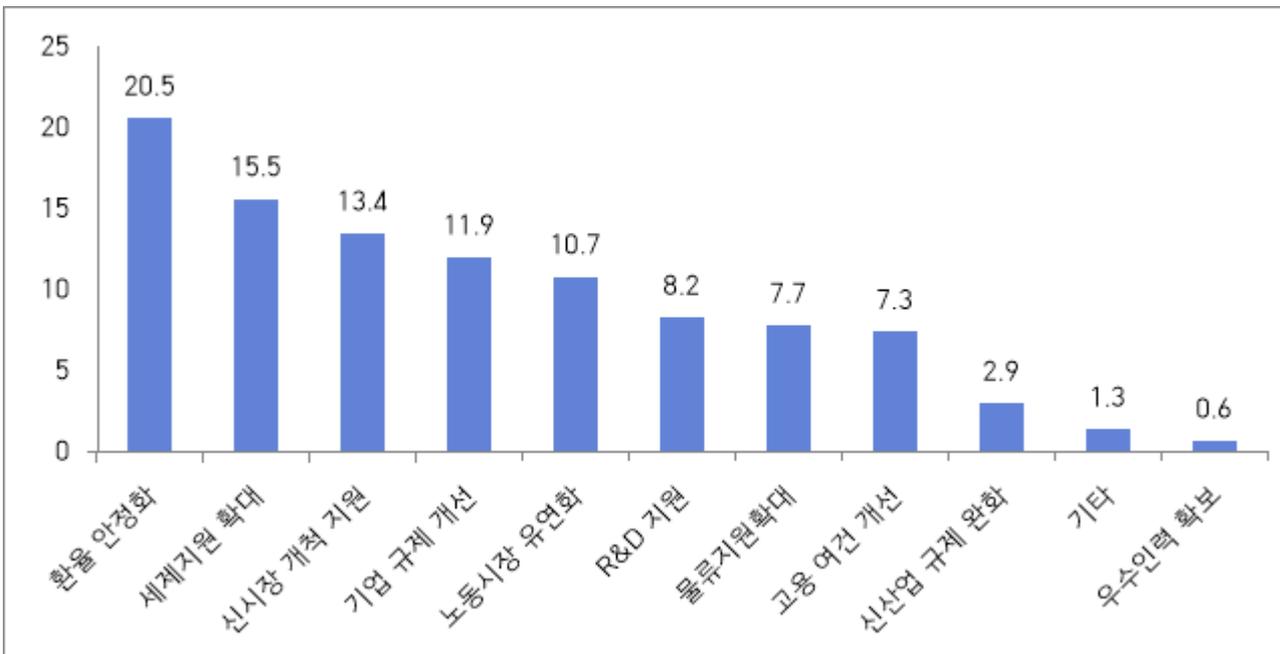
2025년 1월~3월 원/달러 평균 환율 : 1,449.78원(1월 1일 ~ 3월 11일 기준)

(자료 : E-나라지표 환율 데이터, 우리은행 환율조회)

-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에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임

-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경영활동 개선 위한 정책 수요

(단위 : %)





구미상공회의소
경북FTA통상진흥센터

구미상공회의소

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3층
Tel. 054-454-6601 Fax. 054-454-6606

경북FTA통상진흥센터

39277,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0, 3층
Tel. 054-454-6603 Fax. 054-454-6606